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스포츠동아 3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이종범 "펠레는 축구화를 탓하지 않는다"

걸쭉한 입담으로 선수들 자신감 업
유지현코치, 직접 흙 만져가며 체크
우승해도 금메달 못 받는 코치진들
오직 한국야구 발전 위해 솔선수범


이종범 코치

"펠레는 축구화 탓을 하지 않아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 이종범 코치가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말했다. 덕분에 덕아웃에는 기분 좋은 웃음보가 터졌다. 분위기를 띄운 이 코치는 이후 총총히 발걸음을 옮겨 외야 좌우 폴을 수차례 오가며 조명탑의 위치를 살폈다. 바람의 방향도 꼼꼼히 체크하며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지 고민하고 또 했다.

한국 AG야구 대표팀이 26일 자카르타 GBK야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B조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AG 3연패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표팀은 선수들 면면도 화려하지만 선동열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면면도 그야말로 '드림팀'이다. 한 명 한 명이 한국야구의 산 역사다.

이종범, 이강철, 유지현, 정민철, 진갑용, 김재현 등 선수 시절 누구보다 화려한 명성을 쌓은 이들은 지금도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 팀 지도자 또는 해설가로 활약 중이다. 사실 AG로 리그가 중단되는 약 2주간은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AG 대표팀을 위해 기꺼이 함께 모였다. 국제대회는 일정도 고되고 해야 할 역할도 프로 팀 코치보다 훨씬 많다. 배터리 코치인 진갑용 코치는 연일 굵은 땀을 쏟으며 배팅 볼을 던진다.

사실 AG대표팀이 우승해도 코치들은 금메달을 받지 못한다. 주인공은 선수고 조연은 감독이다. 코치들의 헌신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AG 대표팀 코치들은 오직 한국 야구를 위해 희생하며 선뜻 '음지의 조력자'를 맡았다.

이종범 코치는 남다른 입담으로 덕아웃 분위기를 밝게 한다. 야구장에서 '펠레 축구화'를 꺼낸 것도 한국과 다른 야구장 시설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수들에게 힘을 내자는 응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해박한 투구 이론을 자랑하는 정민철 코치도 눈을 반짝이며 분주했다. 국제대회 경기장은 마운드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유지현 코치는 그라운드 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잔디도 직접 손으로 살펴봤다.

유니폼을 입은 코치는 아니지만 이종열 전력분석 팀장은 바쁜 방송해설 스케줄 속에서도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현미경으로 읽듯 대만, 일본 선수들을 분석했다. 선수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팀장은 훈련 때 선수들이 마실 물을 함께 나르며 지원 스태프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도 한다.

한국 야구는 AG에 최고의 선수들을 참가시켰다. 우승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입대 나이가 꽉 찬 몇몇 선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그러나 야구팀에는 태극마크를 위한 헌신과 희생,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rush@donga.com



▶안치홍 첫 안타 시동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안치홍(오른쪽)이 26일 자카르타 GBK 야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예선전에서 3회 안타로 출루한 뒤 1루 베이스 코치로 나선 박민우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뉴시스

AG 빅마우스

● **"새벽 2시에 아침 먹었다."** (마라톤 최경선. 26일 열린 여자 마라톤에서 2시간37분 49초로 4위에 오른 뒤 새벽 6시 경기 시작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 **"2020도쿄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다."** (여자 수영 김서영. 24일 개인혼영 결승에서 한국에 36년만의 금메달을 안긴 뒤 26일 귀국하며)

● **"팬들 질타에 감사드린다."** (남자 양궁 오진혁. 25일 리커브 남자 단체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누른 뒤 '팬들 질타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반성하며)

● **"금메달 땄으니까 더는 반대 안 했으면 …."** (여자 주짓수 성기라. 25일 한국의 AG 주짓수 첫 금메달을 따낸 뒤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고 회상하며)

● **"훈이 형! 농구 금메달 따면 홈런 후 슈팅 세리머니 할게요."** (프로야구 KT 위즈 강백호. 같은 그룹 농구단 소속이자 입단 동기인 허훈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에서)

● **"땀을 흘려야만 스포츠라는 시각은 불공평하다."** (e스포츠 이상혁. 이번 AG부터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 대한 편견에 억울해하며)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선동열호 인니·홍콩전 '콜드게임 특명'

선발투수 한 명으로 경기 끝내면
슈퍼라운드 불펜 몰아넣기 가능

콜드게임, 투수 소모 최소화를 위해 선동열호가 걸어야 할 지름길이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야구 대표팀이 27일부터 이틀간 차례로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만난다.

두 나라를 상대로 한 콜드게임은 결코 무리한 바람이 아니다. 홍콩은 2010광저우 대회 때 AG에 첫 출전했다. 한국과 2010광저우, 2014인천 대회에 모두 만났으나 콜드게임 패배를 면치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다. 야구를 하는 나라가 아닌 탓에 이번 대회를 위해 야구장을 신설했을 정도다.

한국은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1998방콕 대회부터 치른 4년 전 인천 대회까지 AG 27경기 중 11경기에서 콜드게임을 거뒀다. 투수 엔트리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콜드게임은 필수다. 만일 몇 수 아래인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상대로 9이닝을 꽉 채운다면 적어도 투수 3~4명은 소모해야 한다. 하지만 일찌감치 승기를 챙긴다면 선발투수 한 명으로만 경기를 끝내게 된다. 이 경우 슈퍼라운드와 결승전에서 불펜진 몰아넣기가 가능하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번 AG 콜드게임 규정은 5회까지 15점차, 7회까지 10점차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맛들의 축제 전문점의 깔끔하고 특별한 맛!
배달전문점 대세! 소자본창업!
신규창업 5천만원 투자로 월 8백만 수입가능!(완벽 배달시스템 구축)
기존간판 그대로 매출 급 상승 국민이 좋아하는 엄선된 대표메뉴! 이제 집에서 외식의 기쁨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에서 지금 주문가능합니다!
짐으로 통삼겹 — 통삼겹2인세트, 석쇠불고기, 제육불고기, 오삼불고기, 쭈삼불고기, 낙삼불고기
통삼겹집밥 도시락
울엄마 김치찜 — 삼겹두부김치찜, 스펨김치찜, 꽁치김치찜, 참치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맛들의 찜축제 — 묵은지 돼지갈비찜, 매운 돼지갈비찜, 안동찜닭, 닭도리탕, 묵은지 닭도리탕
맛들의 찜축제 — 아구찜, 명태알찜, 대하찜, 쭈꾸미찜, 꽃게찜
불타는석쇠불고기
매콤석쇠 육삼냉면 — 매콤석쇠 육삼물냉면, 매콤석쇠 육삼비빔냉면, 안매운 석쇠 육삼물냉면, 안매운 석쇠 육삼비빔냉면, 단품) 물·비빔냉면
완전 소자본창업! 메뉴선택 오픈가능!
(주)애드쉐어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133 (종암동)
가맹점안내 수유점 / 성북1호점 / 화곡점 / 신촌점 / 노원점 / 은평점 / 의왕점 / 일산동구점 / 부천원종점 / 부천심곡점 / 광주수완점 / 광주서구점 / 광주풍향점 / 광주백운점 / 전주진북점 / 전주2호점
청년창업 특별우대!
DaUm 맛들의 축제
창/업/문/의 02)992-5282